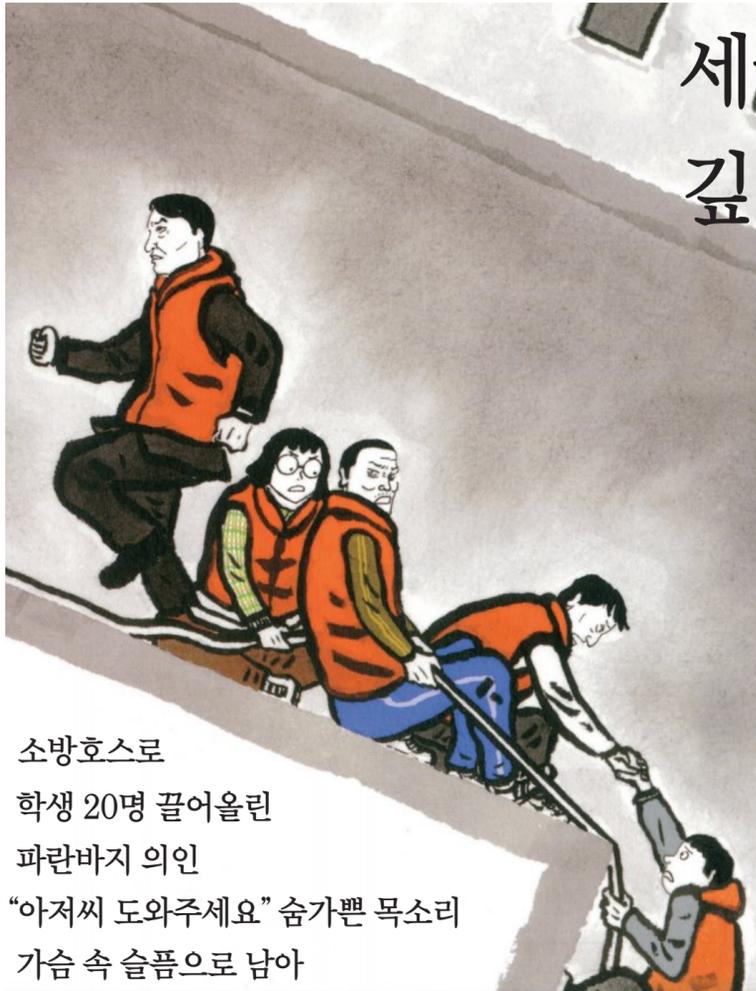


세월호 선체 내부의 홀속 깊고 어두운 그날의 기억



소방호스로
학생 20명 끌어올린
파란바지 의인
“아저씨 도와주세요” 숨가쁜 목소리
가슴 속 슬픔으로 남아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홀 :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

김홍모 지음

오늘은 세월호 참사 7주기가 되는 날이다. 여전히 7년 전 아픈 기억은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슬픔으로 남아 있다. 생때 같은 자식들을 차가운 물속에 생매장해야 했던 상흔은 그 무엇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

아이들을 차가운 바다에 묻은 부모들과 가족들 못지않게 고통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바로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는 생존자들이다. 제주에 살고 있는 생존자 24명, 전국 172명 생존피해자들에게 ‘세월호’는 여전히 진행 중인 참사다.

참사 7주기를 맞아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를 다룬 만화가 출간돼 눈길을 끈다. 당시 학생 20여명을 구해 ‘파란바지 의인’이라 불리는 김동수씨 증언을 토대로 그린 ‘홀: 어느 세월호 생존자 이야기’가 그것. 어느덧 7년이 흘러버린 시간 속에 다시는 이런



쓰라린 고통과 슬픔을 겪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며, 우리 사회가 재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목격할 질문을 던진다.

용산참사, 제주강정마을 투쟁 제주 4·3 등 굵직한 사건을 그려온 만화가 김홍모의 작품이다. 3년에 걸쳐 완성된 작품은 4·16재단 공모 ‘모두의 원손’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특히 ‘제주 세월호 생존자와 그들을 지지하는 모임’에 수익금이 기부되는 ‘홀’ 북편당은 목표액을 하루만에 달성하며 화제를 모았다. 당시 시민 1천여명이 힘을 보탤었다.

미류 416세월호참사 작가기록단은 “잠시라도 잊는 게 소망이 되는 사람이 있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세월호 친구들이 살고 싶었던 내일’이자 ‘세월호에서나오지 못하는 아빠의 4월 16일’을 살아가는 ‘홀’의 생존자와 가족들에게서 우리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한다.

책 제목이 상징하듯 ‘홀’은 깊고 어두운 그날의 기억을 불러낸다. 이야기는 생존자 ‘민용’의 시점에서 시작한다. 제주 화물차 기사인 민용은 육지에서 일을 마치고 인천발 제주행 세월호에 트럭을 싣는다. 바다 특

유의 안개가 자주 끼는 날씨 탓에 출항이 늦어진 다. 민용은 차를 빼서 목포로 향할까 고민하지만 이내 출항한다는 소식에 세월호에 오른다.

그리고 다음날인 4월 16일 오전 8시 49분, 아침 식사를 마치고 잠시 쉬던 중 갑자기 굉음이 들려온다. 그리고 배가 기울면서 여기저기서 비명이 들려온다. 민용은 동료들과 함께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올라가려 서두른다. 그때 “아저씨 여기 좀 도와주세요!”라는 숨 가쁜 소리가 들려온다. 세월호 선내 중앙의 홀이 배가 직각으로 기울면서 남따러지와 같은 형국으로 변한다.

민용은 소방호스를 꺼내 홀에서 학생들을 끌어올리기 시작한다. 그러나 미처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 민용은 그날 파란 바지를 입었던 때문으로 후일 많은 이들에게 ‘파란 바지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된다.

작품은 생존피해자들의 사연을 다루면서도 한편으로 피해자 개인을 넘어 가족의 시선과 이야기에 초점을 맞춘다. 1부는 민용의 시점에서 당시 상황을 이야기한다면 2부와 3부는 참사 당시 고통스러웠던 둘째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한 첫째, 민용의 아내 시각으로도 전개된다. 민용에게 가족은 그렇게 든든한 지렛대가 된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에게는 더러 도망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 참사가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과 공동체까지 전이된다는 의미다.

그동안 단원과 학생이 아닌 ‘일반인’ 생존자는 거주지가 달라 다른 승객과 연결고리가 없어 될 조영된 측면이 있었다. ‘홀’은 그 빈자리를 채우는 가교를 담당한다 볼 수 있다.

작품은 ‘파란 바지 의인’인 김동수 씨의 시점을 통해 세월호를 함께 기억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아울러 참사는 탐소했던 이들에게만 있던 일이 아닌 우리 공동체 모두가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다는 분명한 사실임을 보여준다. <창비·1만7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1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

전하영 외 지음

젊은작가상은 등단 10년 이하 작가를 격려하고 독자에게는 무한한 가능성을 간직한 소설의 씨앗을 전달하는 매개가 되기 위해 제정됐다. 올해로 12회를 맞은 젊은작가상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선정됐다. 김건형·선우은실·오은교·조대환 평론가가 2020년 한 해 동안 발표된 수백 편의 중단편소설을 읽고 토론을 거쳐 선별했다. 이후 소유정·이승·임정균 평론가가 합류해 신고 작업을 했다. 그렇게 18명의 작가가 쓴 20편의 작품이 본심 심사위원들인 강지희, 박민정, 신수정, 이승우, 최윤에게 전달됐다.



열린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본심이 끝나고 보니 모두 7명 수상자들이 모두 젊은 작가상에 처음 소개되는 소설가들이었다. 그 가운데 대상 한 편을 정하는 과정 또한 치열한 토론과 합의과정을 거쳤다.

최근 발간된 ‘2021 제12회 젊은작가상 수상작품집’은 대상 수상작 전하영 ‘그녀는 조영동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를 비롯해 ‘나뭇잎이 마르고’(김벨라), ‘사랑하는 일’(김지연), ‘목화맨션’(김혜진), ‘당신 엄마가 당신보다 잘하는 게임’(박서련), ‘0%를 위하여’(서이제), ‘우리의 소원은 과학 소년’(한정현)이 수록돼 있다.

대상수상작 ‘그녀는 조영동 아래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계약직 행정사무 보조로 일하는 ‘나’가 우연한 계기로 자신의 대학 시절을 떠올리며 시작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열정적이면서 연약한 시절에 겪은 일이 현재의 시점에서 어떻게 다시 쓰일 수 있는지 호흡으로 차분히 보여준다.

강지희 문학평론가는 “새로운 예술사가 쓰이기 시작한 분기점에서 이 소설은 젊은 작가상 대상의 자리에 충분히 값있다”고 평한다. <문학동네·5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동경대전 1·2

도올 김용옥 지음

수운 최재우가 저술한 ‘동경대전’과 수운에 대한 바이오그라피인 ‘대선생주문집’을 번역, 해설한 책이 발간됐다.

도올 김용옥이 펴낸 ‘동경대전’(2권)은 동학과 동학의 창시자 수운 최재우의 사상을 집약한 결과물이다. 도올은 전자 ‘노자가 울었다’에서 노자의 지혜를 토대로 성장주의에 빠져있는 현 문명의 시급한 전환을 촉구했다.

동학은 160년 전 수운 최재우에 의해 우리 민중들 속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철학이다. 단순한 이념만이 아닌 실천의 영역에서 구현되고 완성된 사상이다. 동학에 참여한 이들은 동학을 일컬어 “믿는다”라고 하지 않고 “동학한다”라고 말한다. 그만큼 구체적인 실천을 지향했던 학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수운은 동학 사상을 직접 글로 쓴 바 있다. ‘동경대전’은 한문으로 쓴 것이며 한글 가사체로 지은 것은 ‘용담유사’이다. 모두 빛나는 우리 민족의 경전이다. 사실 ‘동경대전’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다. 도올이 번역하고 해설한 책은 동학의 지성과 영성이 전 인류의 미래 비전으로 뻗어나가게 해야 한다는 당위를 담고 있다.

당시 안으로 쇠락하는 조선 사회의 말기적 분위기 속에서 밖에서는 서양 제국주의의 침략해오는 위기의 시기였다. 수운은 내외외환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 민중에게 새 각성과 삶의 혁명을 촉구했다. 그것은 ‘세상을 개혁하자’라는 말로 집약된다.

김용옥은 “동학혁명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동학은 눈물이다. 있는 그대로의 동학에 대한 진실한 기술 앞에서 눈물을 감지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이전 기존의 세계문명에 얽매되어 있는 모든 유체함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통나무·각2만9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

강범규 지음

창업 8년 만에 기업가치 약 300억 달러를 달성한 세계 최대 속박공유업체 ‘에어비엔비’, 대한민국 국민 두 명 중 한 명이 사용하는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서 지난해 기업가치 40억 달러를 만들어낸 ‘우아한형제들’, 날개를 없앤 혁신적인 선풍기를 만들어낸 기업가치 6조 원의 ‘다이슨’. 이들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바로 창업자들이 모두 디자이너 출신이라는 것이다.



최근 출간된 ‘라면집도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다’는 200개가 넘는 제품과 그래픽 디자인을 했던 실천과 디자이너이자 지금은 차별화된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해 연 매출 100억 원이 넘는 디자인 회사를 운영 중인 강범규가 전하는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다. 평소 “왜 라면집은 다들 비슷비슷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그는 그때마다 디자이너가 하면 다르지 않을까 생각했다. 같은 것에서도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는 디자이너의 감각과 안목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금, 디자이너의 일’, ‘왜 디자이너가 하면 라면집도 다를까?’, ‘남은 것도 새롭게 보는 디자이너의 안목’, ‘같은 것도 더 좋아 보이게 만드는 디자이너의 표현법’ 등 총 4개의 장으로 구성된 책은 디자인이란 무엇인지, 디자이너는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다룬다.

저자는 디자이너와 같은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일을 즐겨야 하며 디자이너에게 혹은 디자이너의 안목을 훑치고 싶은 사람에게 일은 놀이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디자인은 지금 존재하는 어떤 것들 다른 것으로 바뀌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그래야 일도 잘되고 삶도 즐겁다는 게 저자의 생각이다. <바이북스·1만6000원>

/전재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코로나19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힘내세요!

정성과 따뜻한 마음으로 진료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www.dsuh.co.kr

통증·재활 교통사고

동신대학교한방병원
진료네트워크 : 광주·목포·나주·서울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

최우수1등급 획득 동이병원

광주광역시 남구 대남대로 238 ☎ 062.650.2500

문영래 정형외과 병원

EBS 명의

광주 서구 운천로 148 (상무중학교 옆)
062)606-8275

보건복지부 지정 안과전문병원

밝은안과21병원

노안 백내장 스마일 라식

광주 신세백백화점 사거리 현변방향 062)354-9000

광주전남 대표 치과병원 **TIGERS** 기아타이거즈 공식지정치과병원

보건복지부 인증치과 /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상무스타치과병원

김윤규 의 원장 일동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58(치평동 1236-3)타임스타워빌딩 7층
T. 062-367-8889 F. 062-367-8822

www.ssewoori.com since 2002

광주 새우리병원

2019년 1월 현재 2개, 2015, 2019년 3회 연속 지정!

보건복지부 지정 **광주 유일**
척추전문 병원

지정기간 : 2018.01.01 ~ 2020.12.31

광주 화정동 농성역 4번출구 대표전화 062)603-8000